

안철수-주호영, 양당 통합 논의 나뉘었다

安, 정운찬 최고위원 이어 원내대표까지...유승민과 만남도 타진 “처음 만나 각 당사정 얘기 등 나뉘...큰 틀에서 방향차이 없어”

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 양당 통합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

은 것으로 확인됐다.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

과 만나 “지난 주말 안 대표와 만났



김동철 “강원랜드는 청탁랜드” 국민의당 김동철(가운데)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0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강원랜드 청탁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왼쪽부터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, 김 원내대표, 이용호 정책위의장.

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”고 밝혔다.

주 원내대표는 “처음 만난 것이라 서로 각 당 사정에 대한 얘기,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”며 “구체적인 통합 절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

안 대표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도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“두 분이 처음 만났으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”고 말했다. 송 의원은 “큰 틀에서, 방향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”이라고 부연했다.

안 대표는 아울러 추석 전엔 정운찬 바른정당 최고위원과도 만남을 가졌다. 안 대표 측은 바른정당 당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도 타진 중이다.

국민의당은 최근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까지 오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바른정당을 향한 구애를 본격화하고 있다.

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당내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, 오는 11월 초계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 문제를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.

뉴시스

이상돈 “바른정당과 통합 여론조사, 누워서 침 뺏기”

“安, 능력 있다고 안 보여...서울시장 당선가능성 있겠나”

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당-바른정당 통합시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로 치솟는다는 국민정책연구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“우리 당의 연구원이 쓸데없는 여론조사를 해서 당의 가치, 정체성을 훼손한 것”이라고 혹평했다.

이 의원은 전날인 18일 SBS라디오 ‘김성준의 시사진담’에 출연해 “(바른정당과의 통합은) 가능하지도 않은 일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그는 “누워서 침 뺏기”라고 재차 여론조사 실시를 강력 비난했다.

그는 “지금 바른정당도 두 쪽이 난 상황”이라며 “우리 당도 바른정당에 남은 반쪽인지 3분의 1쪽인지 거기와 합당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은 제가 불 때 기껏해야 40명 중 많지 않다”고 했다.

그는 또 “바른정당이 창당할 때

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, 그러나 다 쓸러 빠지지 않았나”라며 “(통합시 지지율이) 20% 등등 그런 것에 대해 현혹되는 것은 우스운 일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이 의원은 “현재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 하는 것은 저의 자멸의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”고 재차 바른정당 통합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. 그는 또 “정책연대,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한편 그는 안철수 대표 취임 이

후 국민의당 지지율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 “(안 대표가)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”며 “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야당 대표할 때, 또는 이명박 정권 당시 백의종군하고 있었지만 지지율이 계속 높지 않았나”라며 “대중의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없다. 그런 것이 카리스마”라고 했다.

그는 아울러 안 대표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도 “출마하는 것은 자유라고 본다. 그러나 여론조사 추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”라고 반문했다.

뉴시스

지역공감, 미래창조, 전문직업
湖南新聞
전화 062)224-5800
팩스 062)222-5548



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인권탄압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, 서울구치소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(1인당 1.06㎡, 약 0.3평)을 알기 쉽게 신문지 2장 반으로 만들어 직접 누워 보고 있다.

국감장에 드러누운 노회찬 “朴 독방, 일반수용자 10배”

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‘박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공간은 일반 수용자보다 10배나 넓은 곳에서 지낸다’고 반박했다.

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.

노 원내대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워 이목이 집중됐다. 그는 “서울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은 1.06㎡이며 ‘알기 쉽게 계산해 보면 신문 2장 반이다. 제

가 한번 누워보겠다”고 말하며 누웠다.

이어 노 원내대표는 “박 전 대통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구치소의 거실면적은 10.08㎡이다. 이는 일반 제소자들 수용면적의 10배”라며 “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일반 수용자들이다”라고 주장했다.

한편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7일(현지시간) ‘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박 전 대통령 측 보고서’를 입수했다”고 보도했다.

뉴시스

워싱턴포스트 “韓 정부, 트럼프 DMZ 방문 반대”

오는 11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(DMZ)를 방문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국무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.

워싱턴포스트(WP)는 18일(현지시간)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놓고 미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방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. 가뜰이나 북미 간의 갈등과 출동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게 되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경호에도 문제가 생길

수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.

WP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을 반대하고 있으며, 국무부 역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말싸움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. 특히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오관 가능성이 높아져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고 아시아 금융시장 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악영향이 갈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.

Jindo Culture and Art Festival / 珍島文化藝術祭

진도문화예술제

2017. 10. 19. 목 - 10. 22. 일 (4일간)
장소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

제25회 대한민국의 우수지도개 선발대회
10. 21. (토) ~ 22. (일) 진도군 진도개테마파크 일원

제8회 진도 꽃게한라당 잔치
10. 21. (토) ~ 22. (일)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일원